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 성경 신학, 6차 세션, 모세 언약, 1부

© 2024 Jeffrey Niehau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6차 세션, 모세 언약, 1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벗어나 모세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모세 언약을 예견했고, 특히 정복과
관련하여 모세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그 언약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전에 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실제로 신약에서 가장 명확하게 밝혀졌으며, 그
명확화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서 그는
율법이 지금보다 더 깊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서 그는 율법의 두 가지 측면 또는 두 부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언약에서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유형의 율법을 다룹니다
. '너는 하지 말라'는 아포딕틱 율법과,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것과 같은, 결의적 율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알다시피, 형제에게 화가 났을 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간통: 마음으로 여자를 탐했다면, 육체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유죄입니다. 해외에서는 예수께서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실제보다 더 엄격하게 만든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 문맥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살펴서 그 구절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보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 구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모세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세가 당신에게 말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그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모세와 동등하고 더 높은 권위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모세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는 그의 주장에 의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할 것처럼, 예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율법을 성취합니다. 그는 율법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성취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합니다. 그는 율법이 그에게 준 모든 것을 성취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율법을 성취하여 율법에 의해 예언된 새 언약이 됩니다.

그는 또한 율법의 모든 희생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율법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쯤 이스라엘은 그들이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교육적 목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요점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8장에서 지적하듯이,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게 잘못된 점은 그것이 그들에게 기준을 주었지만 그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 언약을 통해 오는 성령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기준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힘든 교훈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바빌론이 그들에게 가한 끔찍한 정복으로 인해 유배된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글썄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기준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모든 것을 겪는 꽤 힘든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해야 할 많은 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말했듯이, 온 땅의 심판자가 옳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분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백성을 구성하고 여러 면에서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점을 지적하는데, 그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범법 때문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이 언급하는 씨,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올 때까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율법은 중보자에 의해 천사를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 21절로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의는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었고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진술은 바울이 모세 언약이 더 이상 언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는 여러 진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 언약은 왕국의 특정 형태, 즉 구약성경,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왕국의 헌법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 유형의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폐지된 모든 제사장적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레위 제사장직 대신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비유하자면, 우리 자신은 제사장의 왕국이 되었지만, 레위 제사장직은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제사장에게, 성전에, 등등으로 황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법률은 농업 국가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것이 존재하는 한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없습니다.

모세 언약은 우리가 노아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살펴본 것처럼, 모세 언약은 특정한 것에 대한 사형을 수반합니다. 왕국의 형태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사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왕국의 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법률과 사제적 법률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도덕적 법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입니다 . 그리고 물론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주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결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새 언약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언약 자체는 기능하는 언약으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 법을 폐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 법적 법안을 폐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같은 요점을 말합니다. 그는 죄가 당신의 주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동성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어 용어입니다. 율법은 *paidagogos*,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훈련시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다시 산상 설교의 목적 또는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즉, 모세 언약은 또한 어떤 것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어느 정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씨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언약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언약 서사 자료에서 받아들여지고 반복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약이 끊어지기 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거래의 일부로 존재한 후에 재확인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씨의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된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른 단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 역사적 평면에서,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으로부터 별을 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네가 그들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그러하리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모압 평야에서, 그들이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를 늘려서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단계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숫자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아브라함 언약에서 언급했듯이, 이집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의 후손은 자신의 것이 아닌 나라에서 낯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가 되고 학대를 받을 것이지만, 나는 그들이 노예로 섬기는 나라를 처벌할 것이고, 그 후에 여러분은 큰 소유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때 그것은 성취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은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 용어는

기억되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주의가 우연히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갑자기 기억해 낸 것은 아닙니다.

이 용어는 기억한다는 뜻이지만, 그가 지금 무언가에 주의를 돌린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서 우리는 이집트인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그는 모세에게 지시하여라. 이것은 시나이 산에 있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멍에 아래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다. 나는 팔을 뻗고 강력한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그가 약속한 것과 똑같다. 너희를 모세 언약에 따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도 성취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돌아와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움직이고 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네게 소유로 줄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목적,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교육적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 언약의 율법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선지자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의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언약 중재 선지자와 언약 소송 선지자입니다. 언약 중재 선지자는 주님께서 그 아래서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이들 중 첫 번째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는 일반 은혜 언약의 노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었고, 이를 위해 형성하고 선택한 사람이 옳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를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어 그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특별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 언약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위한 언약 중재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재자입니다. 그리고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예언적 부름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현과 함께 신성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항상 주님께 의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타나서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를 가나안에서 구출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글썄요,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중재자로서, 그리고 입법자로서, 때때로 불리던 대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이 모든 반대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글썄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나를 보내면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할까? 그리고 주님은 이 질문들에 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믿도록 그가 행할 수 있는 표적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글썄요, 저는 웅변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는 아론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세를 사용합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적 주저함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관련하여 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예언자 역할을 맡는 것을 꺼려합니다. 모세는 언약 중재자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모세 언약 하에서 언약 소송 예언자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같은 종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때때로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데 야망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만약 그가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는 그것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일에서.

하지만 그런 주저함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는 주님의 토라, 그의 지시를 전해야 하며, 표적과 기사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7 장 3절은 처음으로 그 구절이 등장하는데, 표적과 기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어의 흥미로운 조합이고 아이디어의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그것은 심판의 행위 또는 심판의 행위로 일어날 것이지만, 또한 구원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미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한 표적과 기사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살펴보면, 언뜻 보기에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한 말을 표적과 기사로 행했습니다. 이집트가 멸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그들은 파괴적입니다.

물론 예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치유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꽤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주님은 악한 것 또는 악의 결과, 심지어 질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락하고 죄 많은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병들 수 있는 세상에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 그는 그 최악스러운 환경, 그 최악스러운 현실의 결과를 다루고,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병에서 자유롭게 하거나, 확실히 그것이 악령이라면, 그는 그 사람을 그 병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는 악한 세력, 즉 파라오와 그의 의도와 그의 세력을 파괴하고,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그 파괴를 이용해 그의 백성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 또는 치유나 구원이 관련될 때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백성이나 그의 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악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이 심판은 전쟁이고,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글썄요,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에서 나의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더라도, 그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집트에 내 손을 얹고, 강력한 심판의 행위로, 내 분열,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낼 것이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2권에서 이에 대해 꽤 많이 썼지만, 여기에는 일련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반복 해서, 파라오가 그의 마음을 굳게 했고, 심지어 그의 군대와 그의 추종자들도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역동성이 있고, 그것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런 이유로 파라오를 세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그릇은 존귀하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파라오는 불명예를 위해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은 파라오를 그가 된 그대로 만들었지만, 어떻게든, 파라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생에서 풀 수 없는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파라오가 주님을 저항하고 있고, 주님이 그를 확증한다는 역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만약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설교한다면, 그것은 주목할 만한 좋은 것입니다.

이 설교가 저를 주님께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안에서 확증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역학입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국가나 통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집트인의 생각에 따르면 파라오 자신은 태양신의 화신이었습니다. 사실, 매우 그리스도론적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은 물론 이집트의 최고신이었고, 다른 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월절 밤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나는 이집트를 지나가서 모든 맏아들을, 사람과 짐승을 다 쳐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입니다. 글썄요, 모든 재앙이 이 재앙으로 절정에 달하지만, 주목할 가치가 있고, 잠시 후에 다른 신들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가지, 어둠의 재앙과 맏아들에 대한 심판, 어둠의 재앙이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이집트의 최고신이라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태양의 화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아들, 그의 맏아들은 태양신의 다음 화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의 맏아들을 치실 때, 그리고 여기 경고에서 요점은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맏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성취될 때, 요점은 그것이 감옥에 있는 사람부터 파라오의 집안까지 모든 사람의 맏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글썄요, 그러면 주님은 어둠의 재앙으로 하늘의 태양신을 심판하시고 그가 더 우월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는 지상의 태양신의 화신인 파라오의 장자를 심판하시어 그가 그곳에서도 더 우월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심판, 그 신들에 대한 도매적인 심판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인 레 또는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람세스 2세는 그의 비문 기록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궁정에서 그의 기적을 증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저 예일 뿐입니다.

당신은 하는 모든 일에 태양신 Re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 집니다. 밤에 무언가를 원하면 아침에 빠르게 이루어 집니다.

우리는 당신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그것들은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물에게 산 위로 오라고 하면, 당신의 말씀 후에 홍수가 빨리 나옵니다.

당신은, 실례합니다, 당신은 팔다리에 Re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태양신, Re, Ra의 화신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놀랍도록 그리스도론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집트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을까 하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예수가 실제로 행한 것보다 더 나중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성경만 언급하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적의 왕국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상 숭배, 거짓 종교, 심지어 거짓 신학 뒤에는 사악한 세력, 초자연적 세력이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합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16 이하에서 주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면 그들의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즉 주님을 잊을 것이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인 악마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20에서 바울은 이교도들이 악마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디모데전서 4:1에서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귀신의 교리에 대해 교회에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나 거짓 종교가 있는 곳에는 귀신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글썄요, 우리는 적이 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적이 신이 그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일은 적이 신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예언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거나 메시아의 예언을 더 충분히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브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알게 될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파라오는 태양신의 화신이자 기적을 행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재앙은 모두 이집트의 어떤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들은 어둠의 재앙과 만아들의 죽음으로 절정에 달하는데, 둘 다 태양신을 직접 공격합니다. 글쎄요, 이집트와 그녀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그녀의 신들에 대한 그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마다, 그는 실제로 심판의 대상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그에게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거나 갈대를 건너는 것은 Yam Suph 이기 때문에 더 나은 번역인데, 심판이며, 물 심판 시련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물이 심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가리트 비문에서 바다의 신에 대한 별명 중 하나가 강 판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이 있었던 이유는, 말하자면, 두 사람이 재산이나 무언가에 대해 법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들은 강에 던져졌을 수도 있고, 그들은 그것을 놓고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결론은, 글썄, 강이 그 사람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은 판단 도구인 거예요. 이교도적 사고방식에서, 이건 사실 홍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은 고대 근동에서 심판과 죽음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측면, 즉 적대감의 측면에도 고대 근동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바다의 용 여신 티아마트는 그녀의 부하 악마들과 함께 신성한 질서를 전복하고 혼돈과 그녀 자신의 통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마르두크는 신들을 대신하여 그녀와 싸우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그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에서 그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바빌론이라는 도시와 자신을 위한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하늘의 신과 바다의 신 사이의 갈등의 고대 세계에 존재하며,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혼돈스러운 실체, 죽음의 힘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홍수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때때로 라합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장에서 읽은 라합과 다릅니다. 즉,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라합의 히브리어 어근은 폭풍우처럼 행동하거나 다투거나 혼란스럽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은 실제로 넓게 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이름을 가진 창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단어는 다릅니다. 하지만 라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티아마트와 같은 괴물이었던 듯하며,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왔습니다.

계시록 17:15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민족, 언어 집단, 세력이 많은 물 또는 강력한 물, 그리스어로 많은 물로 특징지어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주의는 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나 갈대 바다로 인도하실 때, 음, 이건 사실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 위에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모티브에 대한 연극입니다. 그는 물 위에 승리하고, 등등.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주님은 물과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그들을 나눌 뿐이야. 그게 다야. 경쟁은 절대 없어.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원한다면 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쟁은 이집트에 대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바다 괴물로 묘사되며, 시편과 이사야에서 시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글쎄요,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로서 모세가 있고,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약속된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신명기에서 예언된 것으로, 시나이 언약을 갱신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반복해도 해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건너 정복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모세가 매우 신중하게, 아마도 땅을 조사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일을 가져왔고, 그것은 모든 것이 매우 유망해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거기에 거인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지만, 도시에는 하늘에 닿는 성벽이 있다는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론, 답은 그들은 할 수 없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0장의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정복한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의 이 보고에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주님의 꾸지람은, 글썄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광야를 헤매고, 당신의 자식들은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글썄요, 잠깐 그 생각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과 노아의 언약, 언약, 그리고 그 갱신과 관련하여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히타이트에서 본 패턴을 따릅니다. 히타이트 황제, 종주권자에게는 가신이 있습니다.

가신이 죽는다. 가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 황제, 히타이트 왕은 아들과 조약을 갱신하고, 아버지와 맺은 조약을 아들과 갱신한다.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방식은, 당신 아버지가 나와 맺은 거래를, 당신도 지금 나와 맺은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조약들이 있었고, 갱신 조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압 평야에 계신 주님,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 시내산에서 맺은 조약, 혹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 그게 뜻입니다. 이게 내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에 더하여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갱신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후반부인 신명기 18장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말했듯이, 언약과 약속은 다릅니다.

언약은 약속을 포함할 수 있지만, 약속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 12장과 22장의 씨에 대한 약속에 관해서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약속에 관해서도 사실입니다.

주님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십니다. 그가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호렙에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주님은 그것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우리는 이 거룩한 불 앞에 설 수 없어. 네가 올라가서 주님과 이야기해.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물이 실제로 어떤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모세를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새로운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시나이에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당신과 같은 다른 선지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이 점을 분명히 해두자. 선지자가 모세와 같으려면, 선지자는 단순히 주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어떤 선지자든 그렇게 한다

이사야가 그랬고, 미가야가 그랬고, 기적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정도로 그리스도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은 진정한 선지자가 되려면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맞죠? 그는 다윗 언약을 중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족의 언약의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언약을 중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토라와의 언약, 모든 신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을 행하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 예언을 이어받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글썄요, 그렇게 말했지만, 신명기 18장의 이 예언적 구절은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의 예언적 지도 아래, 예를 들어 40년 동안 있었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글썄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다루어집니다. 신명기가 이제 갱신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자란 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정보, 주님으로부터의 지시. 그리고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인데, 신명기가 우상 숭배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우상 숭배적 맥락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들은 다시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거기에 가면, 신명기 12장, 당신은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 기구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내가 정한 곳에서만 나를 숭배해요. 그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있어요.

신명기 13장과 이 구절은 또한 다른 것들 중에서도 선지자가 올 때, 예, 내가 너희를 위해 선지자들을 제공할 것이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올 때, 그것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예언, 여기 이 구절은 관련된 문제들을 가장 충분히 다룹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첫 부분은 무엇이 금지되어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배우지 말며, 너희 가운데서 아들딸을 제물로 불사르는 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나중에 그들을 꾸짖었기 때문이다.

점을 치는 자는 점쟁이요, 점술가요, 주술사요, 마술사요, 영매술사요, 마법사요, 흑마법사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자요,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쫓아내려는 이 민족들을 위하여 점쟁이와 점술가의 말을 경청하라. 그러나 야훼여,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그런 계시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하겠습니까? 요점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락 후, 인간은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권력을 얻거나, 부를 얻거나, 무엇이든 그 불안을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들은 하늘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매우 믿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는 조금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medium으로 번역된 용어는 히브리어 용어이고, ov이며, 그것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성경에서 몇 군데 에서 사용되었는데, 그들이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령, 즉 돌아온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매는 이러한 영들 중 하나와 접촉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고,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야. 만약 당신이 영매에게 간다면, 제발 영매에게 가지 마. 하지만 만약 영매에게 간다면, 나는 주님을 알기 전에 한 번 갔었어. 그리고 내 경우, 그 여자는 그냥, 그들은 항상 여자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심지어 엔도르의 마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나는 그때도 그녀가 사람들을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매나 강신술에 갔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영매가 그들이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죽은 여러분의 삼촌 조에게서 소식을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언가를 듣기 시작하고, 삼촌 조가 알고 있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던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조 삼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의심합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신이 악령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조 삼촌은 악령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주변에는 악령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7장, 아니요, 계시록, 레위기 27:20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거기에 맹세한 남자나 여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계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영이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당신과 저는 우리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혼과 영을 그의 재림의 날까지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예수께서 음식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서 더럽혀지지는 않을 거야. 오늘 아침으로 돼지고기를 먹었어. 그러니까, 알다시피, 나는 더럽지 않지만,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영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자라면, 당신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암시는 없지만,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바울도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매가 악령과 관련이 있고,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그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십니다. 이 계시의 단계에서 그가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이 많지만,

그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종류의 계시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실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해야 할 것이고, 모세는 그들이 어땠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방식, 여러분은 이 신과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신과 큰 불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말했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말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직접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므로 이 사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언약의 중재자이다. 그리고 신명기 34:10은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신명기 34장 10절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나중에 어느 시점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와 독특하게 같은 언약의 중재자였습니다. 우연히, 당신은 어딘가에서 그 주장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에서 들었어. 영국에서도 들었어. 가끔씩은 들을 수 있지.

글쎄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복음주의자들은 모세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매우 비판적인 독일 학자 마틴 노트는 신명기가 우리가 가진 가장 쉬운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히브리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명기 스타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명기 34장을 부록으로, 전체 그림에 대한 마지막 단어로 썼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호수아였을 수도 있습니다.

추방 직전의 누군가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알 필요 없어요.

그것은 모세의 저자에 대한 반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세와 같은 언약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다른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그것은 선지자들이 측정되는 기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기준은 어떨까요? 글썄요, 저는 여기에 처방이라는 단어를 연필로 썼거나 펜으로 썼는데, 두문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지요, 맞죠? 그러니까, 당신은 처방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표준 대신 처방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의 처방은 처방된 것입니까? 이 구절의 세 부분을 지금 모두 함께 살펴보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구절은 훨씬 앞으로 나아가 이 예언자 같은 모세에게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이 직면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글썄요, 지금 등장하는 선지자는 어떨까요? 글썄요, 내 이름으로 말하려고 하는 선지자는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마음속으로, 야훼가 말하지 않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면, 글썄요, 선지자가 야훼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야훼가 말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주께 넘겨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경이나 경의의 의미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과 함께 때때로 사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신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이 신을 제대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고대 근동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글쎄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나타날 수 있는 선지자는 어떨까요? 글쎄요, 그 선지자는 형제 중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요나를 일으켜 아시리아, 니네베로 가게 하셨지만, 니네베에서 이스라엘에 예언할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외국인을 데려와 이스라엘에 예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그는 결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13장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미래의 예언에 대한 초자연적 지식은 선지자의 진실성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서 신현적 두려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신의 시내산에서 썼지만, 이것이 시내산 경험의 요점입니다. 이 구절에서 앞서 읽었듯이,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며, 고대 근동에서는 종종 두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불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은 우연히, 이것은 타락 후의 인간 상태입니다. 제가 주장했듯이,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나이에서 사물이 어떻게 보였는지 상상해 보면 창세기 3장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의 바람 속에서 신이 나타납니다. 폭풍의 신현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면 주님은 자신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권능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파괴할 뿐입니다.

사실 요한은 파트모스에 있을 때 주님이 그의 영광의 어떤 것으로 나타나셨을 때, 비록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 성령을 지닌 제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영광의 면전에서 그는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이 있는 곳, 내가 오늘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면, 그가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면 반응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육신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모든 것의 끝에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와 함께 있고 그를 보고, 죄가 없어져서 그와 같이 되고, 그가 있는 그대로 그를 보고 그의 영광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신현적 두려움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항상 부분적인 치료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글썄요, 그들은 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왕국 행정의 일부로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그리스도는 최고의 최후의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스도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이 모든 것과 함께 일종의 선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배경을 형성하기 때문이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오래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약 제도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약속을 합니다.

주님은 언약 관계를 제안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고 모세는 그들의 동의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여 사람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그는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시나이산에 내려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경고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받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물론, 출애굽기 3장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샌들을 벗으라고 하셨지만, 그는 주님과 매우 가까웠고, 지금도 산 위에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저는 주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셨고, 그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보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멀리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또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알다시피, 성육신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제거됩니다. 글썄요, 그 다음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기본 규정인 십계명을 얻고, 그 후에 당신은 자세한 규정을 얻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다른 중요한 것들은 축복과 정복 명령과 조항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제가 잘못하여 부여라고 불렀던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언약이며, 그것은 실제로 땅을 선물로 주었지만 정복할 땅을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복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 언약은 그것을 이어받아 정복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은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이 구절을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데, 주님께서 거기서 내가 내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리니 너희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중에 도전을 받고 물으셨듯이,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요? 그리고 그는 물론 하나님이시므로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이 천사가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천사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리스어에서 천사라는 용어의 기본 의미는 히브리어로 '가다'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말라크 이라는 단어는 메신저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 상 19장에서 이세벨은 말라크를 보내고, 그녀는 엘리야를 위협하기 위해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가자, 주님의 천사인 말라크가 와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라크는 인간 메신저일 수도 있고, 창조된 천사 메신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어 단어인 앙겔로스(angelos)는 같은 의미로, 기본적으로 메신저를 뜻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메신저입니다. 따라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메신저인 주님의 말라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육신 이전의 아들은 메신저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이 암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불타는 떨기나무 에피소드에서 메신저, 말라크, 주님의 천사, 주님이라는 용어가 번갈아 가며 사용되는데, 둘 다 서로 바뀌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말라크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심부름을 하는 선천적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도 암시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크 야훼, 주님의 사자, 주님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내 본질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을 앞서 전투에 나갈 주님의 사자가 사실 아들, 육신 이전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매우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국의 전쟁에서 우리보다 앞서 온 성육신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이 됩니다.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어쨌든 언약을 쪼개는 일이 있고, 언약 비준 식사가 있는데,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가 올라가서 주님의 면전에서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침내 와서 사람들의 규정을 보고하고, 두 당사자를 상징하는 제단과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제단은 주님을 상징하고 기둥은 부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자르는 것,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문자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자르신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 비준 식사가 있습니다.

때때로, 분명히,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이나 조약이 합의되었을 때, 식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아비멜렉과 이삭이 조약, 우리 사이에 맹세한 협정, 언약을 맺어야 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마지막에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고, 이삭은 그들을 보내주었고, 그들은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언약의 식사를 하고,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글쎄요, 이건 단지 새 언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상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미리, 즉 미리, 언약을 자르는 의식을 미리

거치고 계십니다. 진짜 자르는 일은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성찬례와 함께, 최후의 만찬과 함께, 상징적으로 이것을 하고 계십니다.

받아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쏟는 언약의 내 피이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글썄요,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봅니다. 다락방의 경우, 우리는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맞죠? 시내산 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의 중재자, 장로들을 봅니다. 다락방에서 당신 은 언약의 중재자, 예수를 봅니다. 그는 또한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다락방, 높은 곳에 있는 그의 장로들 또는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두 경우 모두 언약의 피가 있고, 평화의 전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은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두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반복되고, 실제로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론 그에게는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대응. 또한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은 사원 건축입니다.

우리는 주요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그것의 완전한 버전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언약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이나 선지자를 통해 그의 적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는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것은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확립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백성과 함께 성전을 세우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들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이후로 처음으로 성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의 맥락에서 성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일부로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막으로서의 성전의 경우에서 발견합니다. 물론, 출애굽기와 광야 방랑에서 그리고 그 후 얼마 동안.

우리는 또한 창세기 1장에서 언급했던 명령 이행 패턴, 즉 사슬이라고 불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런 것들을 히브리어로 번역한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번역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번역한 용어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장막의 건축과 가구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읽습니다. 그것들은 성취됩니다. 명령 성취 패턴은 나타내려는 것이고,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사실이며, 신약에서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명령을 내리는 자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 권위는 그 사람이 명령한 것이 명령받은 바로 그 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 건축 패턴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이끌어내어 언약으로 그의 백성으로 세우고 성전에 임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전쟁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 전쟁과 다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가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6차 세션, 모세 언약, 1부입니다.